
“난 살아남고 싶은게 아니야. 살고 싶은 거지.”

외관



이름

아레스

나이
30

키/몸무게

키 220cm

무거움

성별

남

이능력 포지션

센티넬

성격

냉철한/능글맞은/결과주의적

“난 고독하지 않아. 고독과 독립은 다르지. “

죽음이 유행인 시절이었다. 퍼지는 화약의 향기, 번쩍이는 굉음들.. 비명소리들, 보호받는 민간인들과 달리 그는 보호받는 존재는 아니었다. 우범지대로 파병되었으니,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는 쪽에 가까웠다. 보호하는 것은 희생이며, 희생은 죽음을 불러왔다. 그래서 언제나 가까운 이들의 죽음에 익숙해질 수 밖에 없었다. 수없는 죽음이 가득한 전장은 무언가를 버리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는 곳이었다. 그가 버리기로 택한 것은 인간성이었다. 목숨의 가치를 가볍히 여기고, 모든 일에 가볍게 대응하는 것. 그건 환경을 견디기 위한 유효한 생존방식 이었다. 그리고 그걸 증명하기라도 하듯, 그는 국가의 탄압이 이뤄진 지금까지도 아득바득 살아남았다.

-

“개리...글렌.. 이번에 죽은놈이 누구더라? 아무튼 ㄱ으로 시작해. “

그의 곁에서는 언제나 독한 위스키 냄새와 화약냄새, 콧노래 소리가 들렸다, 심지어 전장에서도. 멀리서도 맡을 수 있는 높은 도수의 위스키에도 그는 전혀 취하지 않은 듯 보였으나, 적당히 흥이 날 정도로 알싸한 듯 콧노래를 흘려냈다. 취하지 않았기에 술을 마시지 않는 평상시에도 더없이 가벼운 행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누군가의 잔소리에도 대충 넘기려는 듯 가벼운 농담을 섞기도 했고, 아예 못들은 척 하기도 하는 등 요령을 피웠다. 그러나 이 유려함은 결과적으로 맡은 일을 수행하기 위함이기도 했고, 무거운 분위기를 잘 견디지 못하는 탓이기도 했다.

-

“피할 수는 없다. 살아남는 것만이 중요하다. “

그는 소위 말하는 “고결함 “ 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늑대가 양을 잡아먹지 못하고 동정하면 어떻게 될까. 굶어죽는 수 밖에 없겠지. 죽음이 유행인 지금의 시대에는 더더욱 그랬다.

살려달라며 울부짖었던 이들은 상황이 바뀌면 칼을 쥐어 목숨을 위협했고, 보호하던 이들은 어느새 반대편에서 총을 겨누고 죽이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다.

자신의 양심과 인간이라면 가져야 할 내적인 가치, 그리고 내 주변에 남은 이들의 목숨.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명료했다. 선택했으니, 이제 집중할 차례였다. 살기 위해, 살아남기를 택하기로 했다.

기타

소지품 : 리볼버, 리볼버 탄약, 화약가루 폭탄 여러개, 위스키병

-카테일을 좋아한다. 술이 없으면 일이 안될 정도로 광적으로 좋아한다.

-좋지 않은 일이 있거나 일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으면 시가를 핀다.

-능력따라 성격이 형성된 건지, 폭파광이다. 자신의 능력을 사랑한다. 신이 자신에게 준 유일한 선물이라나.

- 궁금한 게 있으면 날파리처럼 계속 옆에서 호기심을 풀 때 까지 그 주위에서 맴도는 성향이 있다. 센티넬이 아니었다면 학자가 되었을 거란 말을 종종 듣는다.

- 투사체를 날릴 수 있는 이능력을 가진 센티넬과 가이드를 선호한다. 안전하게 만질 수 있는 투사체라면 더더욱. 그리 힘을 들이지 않고 대규모 폭발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혁명에는 역시 폭발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

- 기타 연주를 할 줄 안다. 그리 최악은 아니고, 들어줄만한 연주실력을 가지고 있다.

- 능력이 능력인지라, 시력보호 겸 늘 선글라스를 끼고 다닌다.

- 추운 곳을 싫어한다. 폐쇄된 공간도 불쾌해한다.

- Ares theme

<https://www.youtube.com/watch?v=6SrKqY7YoSo>

(through the valley / the last of us 2)

이능력
S

기폭

자신의 손에 닿은 물체 (비생물, 생물 관계없음) 에 표식을 새기고, 손가락을 튕기는 행동을 트리거로 표식이 새겨진 대상을 폭파시킬 수 있다. 폭파범위는 자유자재지만, 폭파범위가 넓을 수록 폭주위험이 높아진다. 이동시에는 로켓처럼 폭파의 반발력만을 이용하여 이동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폭파범위에 자신이 휘말리면 팔다리가 날아가기 때문에, 집중이 필요하다.

스탯

총 50을 빠짐없이 투자해주세요.
한 스탯에 전부 투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파워:20

저항:15

절제:15

[스탯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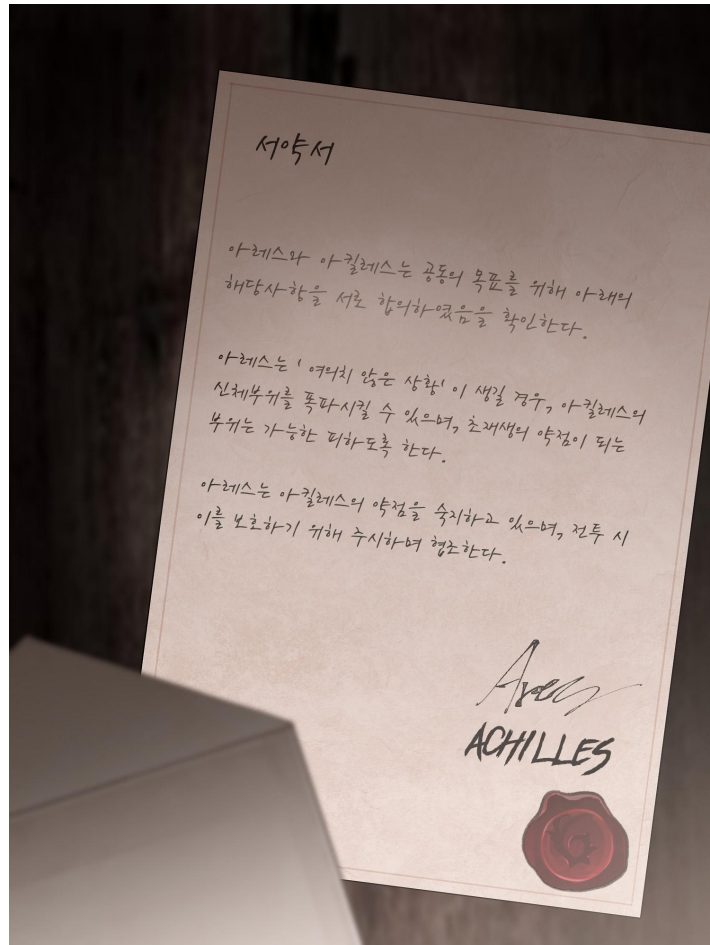
선관

디네반/ 연인

가이딩 외에도, 적당히 즐길 수 있는 상대였다가, 어느날 등의 흉터 자국을 보고 왜 생겼는지 묻는 아레스의 대답을 연신 회피한다는 것이, 오히려 아레스의 호기심을 건드렸다. 흥미가 생긴 것에 불나방처럼 맴도는 버릇을 못 고친 아레스는 디네반의 주위를 맴돌며 계속 추파를 던지기 시작했고, 결국 디네반의 포기아닌 포기로 연인이 되었다. 본디 깊은 관계를 추구하진 않는 아레스의 성격상, 흥미도 채우고, 안정적인 가이딩도 받고, 같은 비즈니스 적인 관계였으나, 최근 무언가 더 깊게 파고 들고 싶다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고, 이 뜻모를 어색함에 혼란을 느끼는 중이다. 아레스만의 애칭은 디디다.

아킬레스 / 상호 살해 계약 상대

공동의 목표를 위해 서로 필요에 따라서는 죽이기로 약속한 상대. 아레스는 아킬레스의 몸 어딘가에 [표식] 들을 남긴 상태이고, 아킬레스는 아레스가 폭주하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면 죽여서 그것을 멈춰주기로 약속했다. 비즈니스 적인 관계지만, 서로 목숨을 맡길만큼 전선에서는 든든한 동료이자, 친구이기도 하다.



테오 / 불과 얼음

아레스의 테오에 대한 생각은 그닥 친밀하지 않다. 그 이유를 구태어 따지자면 불과 얼음의 관계일 것이다. 능력또한 그렇고, 성격도 다르다. 가벼운 관계를 추구하는 아레스에게 자꾸 비집고 들어오려는 것이 아레스에게 고깝게 보일리가 없다. 또한 그의 능력은... 아레스의 트라우마를 일부 자극하는 면이 있다. 그럼 그냥 장기말로 사용하면 되는것 아닌가? 아레스는 그러려고 노력하지만, 그의 성격은 아레스에게 소중했던 누군가의 기억을 상기시켜, 주저하게 만든다. 중요한 순간에, 버릴 수 있을까? 그래야만 한다.

류크 / 술친구

늘상 알콜을 부르짖는 아레스와 잘 맞는 단짝이다. 가끔 술도 좀 뺏어먹을 수도 있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냉철한 점에서도 성격이 잘 맞는 편이다. 아레스의 관계 지향점은 매우 가볍고 가벼운 관계지만, 그 중에서도 호감도 자체는 가장 높지 않을까. 연애상당도 가끔은 할정도로.
